

"코로나가 드러낸 한국 교회의 민낯, 정직하게 마주하고 아프게 성찰하다."

코로나19와 한국교회 연속토론회 시즌1

2021년 4월 매주 월요일 오후 7~9시 기윤실 유튜브 생중계

- 1주차 -

세속화 시대의 팬데믹, 한국교회의 부끄러움

조성돈 교수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 기윤실 공동대표)

1. 역사에서 배우는 전염병과 종교

종교사회학자인 로드니 스타크는 그의 명저 '기독교의 발흥'에서 초기 기독교가 시작되는데 있어서 어떤 요인들이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그중 한 장을 '역병, 네트워크, 개종'이라는 제목을 쓰고 있는데, 여기서 그는 종교사회학자다운 관점에서 예리하게 전염병의 상황에서 어떻게 당시 신흥종교였던 기독교가 성장하게 되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심지어 그는 역병으로 인해서 그러한 재난이 없었다면 사회변동도 없었을 것이고, 기독교가 그렇게 지배적인 신앙으로 부상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한다. 즉 역병이라는 재난이 기독교의 발흥에 얼마나 중요한 모멘텀이 되었는지를 설명한다.

그는 세 가지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첫째는 재난에 대해 기독교는 다른 이방종교나 헬라 철학이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을 잘 설명해 주었다. 사람은 재난을 맞이하면 그 이유를 묻게 된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다른 이들에게는 죽음이 찾아왔는데 왜 내게서는 피해 갔는지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은 현재 마주하고 있는 죽음 앞에서, 즉 나에게 닥친 죽음의 공포와 내 주변 사람들의 죽음 앞에서 이후의 삶은 존재하는가에 대한 것이다. 이에 대해 철학은 '운'으로 보았다. 운명이라는 틀 안에서 사고했고, 인간 외부의 것은 그냥

자연적인 원인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기독교는 절대적 유일신이 있었다. 그에게 모든 이유를 물을 수 있었다. 동일한 상황에서 누구는 병에 걸려 죽고, 누구는 구원을 받게 되는지는 결국 의인과 악인을 가르는 신의 선택이었다. 또 기독교는 확실한 내세관이 있었다. 그들은 죽으면 갈 곳이 있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은 이 땅에서의 삶을 과정으로 설명했다. 천국으로 가기 위한 훈련의 장이었고, 선한 삶 이후의 생은 오히려 축복이었다.

둘째는 기독교인들의 사랑과 선행이었다. 이것은 결국 사회봉사와 공동체 결속으로 나타났다. 당시 병에 대한 대처능력이 없었던 이들은 병은 피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임을 알았다. 그래서 집안에 병자가 나타나면 그 아픈 자들을 내쫓았다. 가장 가까운 가족일지라도 그들을 품기보다는 모두 도망가 버렸다. 결국 걸거리에 시체가 뒹굴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달랐다. 사랑과 희생을 전제로 한 봉사를 실행했다. 그들에게는 천국소망이 있었기에 현재의 희생과 봉사는 오히려 천국의 길이 되었다. 이러한 봉사는 서로를 향한 돌봄이 되었고, 더 나아가서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감당했다. 특히 스타크가 인용한 맥닐의 이야기가 설득력이 있다. 역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모두 자신들의 생존에 치중하고, 치료나 돌봄이 불가능해졌다. 어쩌면 그 가운데 살 수 있는 사람들이 꽤 있었는데 그냥 내다 버리니 그 기회를 잃어버렸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기초적인 간호만으로도 사람들을 살릴 수 있었다. 즉 물과 음식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살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기독교인들의 생존율이 다른 종교를 가진 이방인들에 비해 월등히 높았을 것으로 짐작한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존한 기독교인들이 면역력을 갖추고 환자들을 돌본다. 이를 스타크는 아주 생생하게 묘사한다. '면역 보유자는 환자들 사이를 마치 전신갑주를 입은 듯 돌아다녔을 것이다.' (스타크 142) 즉 모든 사람이 두려워서 환자들을 멀리 하는데, 심지어 가족이라도 돌보지 않고 길거리에 내다 버리는 상황인데 기독교인들이 그들을 돌본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은 전염이 되지 않는다. 신의 저주에서 그들은 제외된 인간들이었다. 결국 이것이 기독교에 대해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었다. 스타크는 당시 기독교인의 비율을 0.4%로 보았는데, 이 0.4%가 기적을 만들어 낸 것이다.

셋째는 이러한 역병으로 기존 도덕 질서가 무너지며 새로운 종교인 기독교에 사람들이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었다는 점이다. 특히 기독교인들의 생존율이 높아지면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만나고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생겼다. 이때에 사람들이 특히 기독교인 집단에 속하려는 마음이 더 생기면서 이런 경향이 더해졌을 것으로 해석한다.

고대문서들을 파헤쳐가면서 밝혀내는 스타크의 연구와 상상력은 당시 역병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해 준다. 그런데 이러한 경향은, 특히 첫째와 두번째 이유로 나타나는 일들은 역사 가운데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초기 기독교의 발흥 시대에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역사 가운데 전염병이 나타날 때마다 사람들은 종교를 찾았고, 더욱 교

회를 찾아왔다.

실제로 종교개혁이 일어난 배경에도 전염병이 자리하고 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페스트, 즉 흑사병이 중세를 휩쓸었을 때이다. 페스트는 이미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200년 전에 유럽을 휩쓸었다. 인구의 1/3 가량이 이 병으로 인해서 죽었다. 인구의 감소는 기존 체제의 붕괴를 가져왔다. 농노들을 기반으로 하는 봉건제도의 몰락이다. 이러한 변동 속에서 새로운 사상이 싹텄다. 페스트는 종교개혁 당시에는 이미 지나간 듯 했지만, 간헐적으로 나타나면서 종종 마을과 도시를 초토화시켰다. 워낙 치명율이 높았기 때문에 그 공포가 컸다. 그래서 역시 이 당시에 도망치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마을과 도시를 소개하는 방법을 썼다.

그때 한 목회자가 루터에게 목사로서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이에 루터가 '죽음 앞에서 도망해야 하는가(Ob man vor dem Sterben fliehen moege)'라는 글을 썼다. 그 글에 따르면 루터는 자신의 경험에 근거해서 목사들에게 그 도시를 떠나지 말라고 한다. 목사가 그 위기에 처한 이웃들을 버리고 도망하는 것은 살인죄와 같다고 한다. 하지만 일반인들을 향해서는 그 병에서 도망하라고 한다. 다만 목사는 시립의사, 세무원, 공무원 등과 함께 그 도시를 떠나지 말고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고 권고한다.

이러한 희생과 봉사는 당시 초기의 개신교가 자리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기존의 종교지도자였던 사제들은 병이 돌았을 때 앞장서서 자리를 떠났고, 사람들을 돌보지 않았다. 그런데 개신교 목사들은 끝까지 남아서 병자들을 돌보고, 죽은 자들의 장례를 치르며 그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이로써 사람들에게 사랑의 기독교가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었다.

외국의 사례만 있는 것은 아니다. 조선 땅에서 외래 종교였던 개신교가 자리할 수 있었던 것은 19세기 말 조선에서 유행하던 병은 천연두와 콜레라였다. 왕실 의사를 했던 알렌은 당시 천연두 예방접종을 조선에 들여왔다. 부적과 같은 미신에 의존하던 당시 상황에서 병의 근원을 밝히고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병을 막은 것은 중요한 일이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부분은 1895년 콜레라의 유행이었다. 청일전쟁의 혼란 속에서 유행했던 이 전염병은 전국에 수많은 사상자를 냈다. 이에 조정에서는 당시 제중원 원장이었던 에비슨 선교사를 방역책임자로 임명하고 병을 막도록 했다. 이때 선교사들이 헌신적으로 일했던 것은 유명하다. 특히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이들의 사역을 지원하고 의지했다. 그래서 '예수병원에 가면 살 수 있는데 왜 죽으려 하는가?'하는 방을 정부에서 직접 붙일 정도로 신뢰가 높았고, 또 많이 의존했다.

2. 세속화된 사회에서 맞는 팬데믹과 한국교회

살펴본 바와 같이 전염병이 창궐하면 종교, 특히 기독교는 큰 부흥을 이루었다. 의료적인 지

식이 없던 때에 사람들은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 교회를 찾았다.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그 저주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다. 또 병에 걸리면 그 병에서 나음을 얻기 위해, 그리고 기독교인들의 돌봄을 받기 위해 교회를 찾았다. 또 죽음을 앞에 두고 천국으로 인도되기 위해 교회를 찾았다.

그런데 세상은 점점 세속화되어가며 전염병이 찾아와도 교회를 찾지 않게 되었다. 1918년 스페인 독감이 돌았을 때 처음으로 전염병과 교회가 분리되었다. 현미경의 발명이 세균을 알게 해 주었고, 병의 원인이 이 세균에 있음을 알게 된 것이다. 그래서 병의 원인을 신이 아닌 병균에서 찾고, 그 치료 역시 과학과 의학에 의존하게 되었다. 하지만 당시만 해도 세속화의 정도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 치료는 분리됐어도 하나님께 구해야 할 바가 많았다.

21세기 첫 팬데믹이 찾아왔다. 스페인 독감 이후 100여 년 만이다. 이제 세상은 완전히 세속화 되었다. 이전 사회에서처럼 종교가 인간의 삶과 사회의 모든 부분을 책임지던 시대는 지나갔다. 과학이 발달하였고, 정부는 종교와는 철저히 구분되었다. 사회는 다원화되었고, 종교적 의미 부여나 주술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 심지어 코로나 시대에는 종교가 코로나 방역에 걸림돌이 되었다. 사람들이 모이면 안 되는 거고, 바이러스가 옮겨가는 비말의 전염 통로를 차단해야 하는데 종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독교는 여러 우려 가운데서도 모였다. 특히 불교나 천주교가 코로나19가 확산되던 2020년 초에 이미 모임을 폐하고 말았던 것에 비해 기독교는 모임을 주장하며 전혀 다른 길을 걸었다. 일부라고 할 수 있지만 모임을 숨기지도 않았고, 공개적으로 모임을 유지했다. 정부의 방역정책에, 그리고 국민 정서에 반하여 '순교적 각오'로 임했다. 결국 이러한 태도는 사회의 반감, 더 나아가서는 혐오를 불러왔다. 이제 기독교는 위기에 처했다. 사람들의 혐오도 무섭지만, 교인들의 실망감, 그리고 이어지는 탈교회 현상이 무섭다.

아마 역사상 전염병이 돌았을 때 교회가 외면 당하고, 부흥이 아니라 오히려 절망으로 빠져들게 된 것은 처음일 것이다. 아니 모든 종교를 통틀어서라도 이러한 사회적 위기에서, 팬데믹의 위험 앞에서 종교가 이런 위기를 맞이하는 것은 그 전례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왜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한국사회와 한국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사회에서 종교를 보는 입장은 민족주의적인 시각에서이다. 간단히 말하면 '호국불교'라는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우리는 역사 교과서에서 먼저 종교를 배운다. 거기에 등장하는 것은 나라가 어려울 때 승려들이 승병을 꾸려서 외적을 물리쳤다는 이야기이다.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호국불교'이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것은 민족주의적인 관점에서 종교를 보는 것이고, 좀 더 나아가면 전체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개신교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종교이다. 특히 칼빈주의의 입장에서 서 있는 한국 개신교는 더욱 개인적인 선택과 의견을 중시한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칼빈주의에 속한 교회들은 트뤼치가 이야기하는 church type에 속하지 않고 sect type에 속한다. 즉 국가교회나 국민교회의 형태가 아니라 개교회 중심주의이며, 개인의 선택을 더 중시한다. 여기서는 국가나 사회와의 관계에서 철저하게 정교분리의 원칙을 중요시 한다. 한국교회의 근저에는 이러한 관점이 자리하고 있다. 더군다나 한국교회는 그 역사가 짧다. 종교 자체의 역사도 짧지만, 한국에서의 역사도 짧다. 그러다 보니 사회의 주류였던 적이 없다. 사회에 대한 책임보다는 이 사회에서 서바이벌이 더 중요했다. 놀라운 것은 이러한 경향이 그 숫자가 미미했던 초기 기독교보다 한참 부흥했던 70년대와 80년대에 더욱 강해졌다는 점이다.

결국 한국교회와 사회는 여러 지점에서 부딪치게 되어 있었다. 한국사회는 집단주의적 성향이 강하고, 민족주의를 강조하고 국가주의를 중시하는데 기독교는 다른 길을 걸었다. 즉 그 가치관이나 성향이 전혀 달랐다. 예를 들어 개신교인인 원희룡 제주지사가 2015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라 산신제 집전을 거부했던 때 나타났던 일이 있다. 제주도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산신제에 제관을 맡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그가 개인적인 종교 신념을 내세워 거부하고 부지사도 하여금 대신하게 하였다고 해서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다. 국가주의적 입장에서 도지사 개인의 양심이나 종교의 자유에 대한 고려가 없었던 일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오히려 도지사의 의무를 저버렸다는 지적이 컸었다. 국가주의의 입장에서 도지사의 종교는 고려 사항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한 예이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번 살펴보아야 한다. 현재 코로나19라는 팬데믹에서 한국교회가 처한 상황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이 사회가 세속화된 사회이고, 다원화된 사회라는 점이다. 그리고 둘째는 이 사회가 종교를 국가주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한국교회는 이 차원에서 코로나19 가운데 교회의 입장을 이야기했어야 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미숙했다.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요구를 밀어붙이려 했다. 결국 이것이 사회와 파열음을 내었고, 현실적으로 적지 않은 감염자를 내면서 사회적 지탄을 받게 되었다.

신천지로 인해서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했을 때 종교단체들에는 비대면 예식이 권고되었다. 그때 대부분의 교회가 반발을 했다. '우리는 교회니까 모여야 한다.', 또는 '전쟁 중에도 우리는 모였다.'는 주장이 나왔다.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 이런 주장이 설득력이 있었을까? 아니면 역시 기독교는 순교의 종교로서 뚜렷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매력을 주었을까? 나는 둘 다 아니라고 생각한다. 더군다나 신천지와 기독교를 구분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그리고 여러 교회에서 전염이 연이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주장이 어떤 영향을

주었을지는 쉽게 상상해 볼 수 있다.

사람들이 보기에 억지 주장이고 시대를 역행하며, 공동체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 같은 이런 주장보다는 종교라는 것이 개인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개인의 양심이나 종교의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위기의 상황에서 사람들의 심리적 안정과 평안을 위해서라고 교회를 찾는 것을 허락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사회를 설득했으면 어땠을까 싶다. 심지어 '생계'라는 이유로 식당이나 체육관, 그리고 카페까지도 시간을 정해서 개방을 하고 있는데, 개인들에게 절대적 가치가 되는 종교생활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으면 어땠을까 싶다.

3. 팬데믹 상황에서 나타난 한국교회의 민낯

그런데 한국교회는 어떤 합리적인 접근보다는, 또는 보편적인 인류의 가치를 가지고 논하기 보다는 우리의 주장을 강하게 밀어붙였다. 심지어 이 가운데 정치적 접근이 있었다. 동성애 문제로 선동이 이루어지고, 차별금지법 반대가 불을 붙였다. 일부지만 점점 극우성향이 두드러졌다. 청와대 앞에서 천막교회가 서고, 광화문에 십자가가 내걸렸다. 지방에서는 조직적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매 주 광화문으로 사람들이 몰렸다. 결국 전광훈이라는 괴물을 만들어 냈고, 한국교회는 그 추종자가 됐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들은 방역문제를 정치문제로 이해했다. 최근에도 몇몇 교회들이 교회 발 전염을 이끌었으면서도 반성보다는 정권 비판만 내세웠던 적이 있다. 결국 이 문제는 8.15 광화문 집회를 정점으로 폭발했고, 사랑제일교회에서 나타난 집단감염으로 한국교회를 나락으로 이끌었다.

과연 한국교회가 방역당국의 권고를 거부하고, 이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정치세력화한 것의 결과는 무엇일까? 우리가 얻은 것이 있었을까? 오히려 이 사회에서 같이 공존할 수 없는 돌아이 집단으로 낙인찍힌 것은 아닐까하는 우려를 거둘 수가 없다. 결국 전염병이라는 위기에서 같이 할 수 없는 다른 이들로만 정의된 것이 아닐까 싶다. 한국교회는 이 상황에서 기독교=전광훈=극우=광화문이라는 이미지를 얻게 되었다. 최근 '국민의힘'을 위시한 정치권에서는 극우광풍을 지나서 국민정당으로 돌아오려는 노력을 기울이며 이미지 쇄신을 하고 있고, 또 그러한 것이 성공적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데 한국교회만 이러한 방향을 포기하지 못하고 나아가다가 사회적 지탄을 받고, 철퇴를 맞은 것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정말 우스운 이야기지만 한국교회가 한국사회의 보수정당에서 배워야 할 바가 있다고 본다.

하나 더 지적하자면 한국교회의 소통방식의 문제이다. 여기는 몇 가지 문제가 포함되는데, 첫째는 다양한 소영웅들의 창궐이다. 2020년 8월 사회가 경악하는 일이 있었다. 종교단체 대

표들을 종교별로 대통령이 만나는 자리였다. 그 자리에서 한교총 대표인 김태영목사가 대통령 면전에서 기독교의 입장을 강하게 이야기했다. 일견 맞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언론에 보도된 것은 '반발'이었다. 구체적으로 그 상황이 어땠는지는 모른다. 하지만 대통령이 특정 교회라고 했지만 교계 지도자들 앞에서 방역 상황에서 기독교의 태도를 꾸짖는 형태가 되었고, 이에 지지 않겠다는 모양으로 김태영 목사가 그래도 우리는 예배로 모일 것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당연히 이런 자리는 국민통합의 차원에서 서로 덕담이 오가야 하는 상황이다. 공개적인 자리였고, 언론을 위시해서 국민들이 지켜보는 자리였다.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은 중간에 소통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니면 김태영 목사가 소영웅심으로 청와대에서 질렀다고 볼 수 있다.

어쩌면 이걸 한 예이고, 광화문 광장에 섰던 여러 목사들, 자칭타칭 교계지도자라고 하는 분들이 했던 언어들 보면 수위를 넘었다. 방역문제로 언론 앞에서 섰던 목사들이 했던 태도나 발언들도 수위를 넘었다. 정제되지 않는 언어들로 발언들을 조정해야 한다. 자신들의 발언이 어떤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국민들에게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한 발언으로 인해서 시험 드는 우리 교인들을 생각해서라도 멈추어야 한다.

둘째는 우리 내부적으로 도는 소통방식이다. 어느 순간부터 기독교가 카톡교가 되었다. 카톡을 통해서 그룹 지어지고, 각종 유언비어가 소비된다. 최근에도 백신과 짐승의 표가 연결되어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했다. 그 외에도 정치적인 것이나 반사회적인 내용이 카톡을 통해서 전해진다. 사회에서 나타남직한 각종 유언비어들이 기독교의 틀 안에서 생산되고, 유통되고, 확대재생산 되어, 동력을 얻어 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 결국 교회가 거짓뉴스의 근원지가 되는 부끄러운 상황이 되었다.

4. 결론과 제안

개신교의 특징은 개교회주의에 있다. 다른 종교와 비교할 때 이 부분은 현저히 드러난다. 이것은 팬데믹 상황에서 더 두드러졌다. 비교할 수 있는 천주교나 불교는 방역상황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모두가 문을 닫았고 정부의 방역 권고를 잘 따랐다. 그런데 개신교는 연합기관이나 교단의 입장이 있었으나 개 교회로 전해지지는 않았다. 아마 많은 교회들이 자신이 속한 교단의 입장도 잘 알지 못했을 것이다. 그럼으로 인해서 여러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대부분 교회들이 방역지침을 지키며 교인들을 전염병에서 보호하려 노력했지만 곳곳에서 구멍이 드러났다.

그러면 개신교회의 구조가 문제인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자유라는 가치는 너무 소중하다. 이에 근거한 개인적인 신앙고백들, 그리고 개교회 중심주의까지 500년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소중히 이어온 전통이다. 우리

는 이게 옳다고 생각하고 있고, 교리나 전통보다도 우리의 고백과 개교회의 공동체를 더 소중히 여긴다.

문제는 합리성이다. 개신교는 이성에 근거된 종교생활이 그 근본이다. 말씀을 이해하고, 개인의 결단과 헌신을 중요시한다. 그래서 모두를 제사장이라 여기고, 누구에 의한 신앙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의 제사장이 될 것을 강조한다. 문제는 이렇게 흩어진 개인들이 합리성에 따라 함께 할 수 있는 통합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한 교회라는 공동체 의식이 필요하다.

한국교회는 이 부분에서 부족함을 보였다. 합리적이기 보다는 점점 더 선동이 난무하는 집단적 히스테리가 나타났다. 광기가 난무하고 폭력이 자행됐다. 갯세마네 동산에서 칼을 휘둘렀던 베드로의 모습이 한국교회에서 보인다. 이런 폭력적 모습은 이번 팬데믹 상황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사회와 소통하지 못했고, 우리를 이해시키지 못했다. 특히 세속화된 상황에 맞는 변증이 부족했고, 한국인들의 정서에 맞는 대응도 하지 못했다. 심지어 종교적 거룩을 잃어버리고 정치집단으로 각인됐다. 결국 십자가가 아니라 칼을 드미는 상황이 되었다.

좀 더 지혜롭게 이 시대와 이 사회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다가갈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기신